

Q&A 레드리본에이즈상담실

Q | 언제 검사를 해야 하나요

1월 20일에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1월 21일에는 콘돔을 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17일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3월 19일에 필리핀에서 에이즈검사를 했는데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모든 필리핀의사들 말로는 아직 검사시기가 이르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검사를 해야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 됩니다. 세기 언제 재검사를 해야 하나지? 짜를 가르쳐 주세요.

A | 12주 검사의 신뢰도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가이드라인

콘돔 없는 성관계는 상대가 감염인일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관계만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월20일 시점에서 12주가 지난 4월14일이 지난 후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월 19일 검사는 8주정도가 지난 후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4주가 더 지난 후에 확인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우 마지막 성관계가 있었던 3월17일에 콘돔이 없었다면 이 관계를 시점으로 12수가 지난 후 6월9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는 시점입니다. 12주 검사의 신뢰도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검사 시기입니다. 검사의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필리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오류라고 하는 것이 음성음 양성으로 판정되는 위양성의 경우일 것입니다. 위양성의 경우는 2차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Q | 감염인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감염인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으며, 임신 2개월째입니다. 저는 아직 약물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염될 확률은 어느정도이고, 아내가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요.

A | 검사후 전문의와 상의해야...

본인은 양성판정을 받으셨으며 임신중인 아내와 태아가 걱정이 되시는군요. 감염된 상태에서 부인과 콘돔 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에이즈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부인의 검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인께서 남편의 감염사실을 모르는 경우라면 검사를 권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부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힘들더라도 검사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음성이면 물론 아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양성일 경우 임신중 태내감염과 출산 시 감염이 걱정이 되는데 미리 알면 14주 이후부터 치료제를 복용해서 태내감염 확률이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시에도 오사와 미리 상의하여 출산시 감염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의 여부도 검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 이면 문제가 없고 양성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약을 복용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양성판정으로 인해 광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인과 아기에 대하여 지금 걱정하시는 저같은 부인이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 | 에이즈의 증상에 대해서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 그중에 대상포진. 붉은 반점같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런것들은 에이즈에 걸리고 몇년이 지나야 생기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1년 반전쯤에 보건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다른 여성과의 성 접촉은 없었구요. 그후 6개월 정도 뒤에 대상포진 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젊은 사람은 잘 안생기는데, 많이 파곤 하신거보네요" 라고했어유. 그리고 초기 증상인 붉은 반점은 꼭 고열에 의해서 생기는 것 인가요? 열없이 봄 이곳저곳에 조금씩 생기는 것들은 에이즈 초기와는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립기도 하고요. 또한 거드름이 밑에 손톱크기 만한 심이 있고요. 조금만 잠들노 좀 생겼어유. 다른 봄에는 없구요. 이거 신경성유종 일것 간기도 한데유. 에이즈와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병증은 에이즈가 어느정도 진행 된 후에나 생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A | 증상은 초기증상과 기회질환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의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진 어른신들께서 자주 나타나지만 피곤하고 피로하게 되면 젊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대상포진이 나타났다면 기회감염질환으로 초기 급성감염기를 지나 무증상(8-10년을 거쳐 이러한 기회질환(한방증)이 나타납니다. 즉 1년 반전쯤 보건소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니 에이즈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이 아닌 다른 이유(과로나 스트레스 등)로 인해 면역력이 일시 낮아져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붉은 반점 또한 에이즈 감염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의 하나인데 초기급성감염기에서 열과 함께 나타나고 열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증상유 감염인 중 50-70% 정도가 나타납니다. 붉은 반점은 어느 한 쪽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몸 전신에 넓게 분포되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음성 판정을 받으셨으니 에이즈 감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1년 반전쯤에 받은 검사에서 검사 시기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시기는 우려될만한 일이 있는 후 12주 후 검사이어야 합니다. 12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더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2주후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면 감염된 것이 아니니 신중 걱정하지 마세요.

Q | 해외출장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감염인입니다. 미국으로 한달정도 해외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복용하고 있는 약을 가지고 가는데 한달부이러게 많은 양이 됩니다. 출입국 검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만약 문제 발생시 AIDS 감염인이며 복용하는 약이라고 설명을 해야하는지유. 현지가는 출장이라유 문제 가 없겠으나 동료들과 함께 가는 출장이라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통의 약 이름이 붙은 스티커를 떼어내서 보관하는데유. 해외에 나갈 경우 설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유. 장거리 비행의 경우, 반나절 또는 그 이상 의 시간이 걸리는데유. 이때 약복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한국시간에 맞춰 비행기내에서도 복용하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한국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하나요? 복용 시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유.

A | 해외출장시 이렇게 하세요.

해외 여행시 출입국 검색에서 치료약은 지참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약은 무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약 포장을 개봉했을 경우 까다로운 경우를 대비하여 주치의의 치료세 설명이 포함된 소견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시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견서에는 국외 여행용이나 업무용으로 본인인 장거리 여행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치료제 투약시간은 12시간 정도 편차를 두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현지시간에 맞추시길) 현지에서의 리듬을 다시 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의 생활에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